

예배 순서

예배의 부름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이 즐겁고 희망찬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 같 이
 조상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 감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 도 시 118: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인 도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송가 559장

찬 송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다 같 이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 같 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 시 교 독 새 해 다 같 이

인도자 :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회 중 : 천지는 없었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인도자 :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회 중 :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도자 :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 중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회 중 :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같이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도자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 도 가 족 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는 가정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서로간의 이해와 희생을 통해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7:20~21 인 도 자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 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인 도 자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제 정말 지극지극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살기 힘들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겠니?”
그 부인이 “예!” 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집안이 지저분한것 같은데 네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를 잘 하고 갔다는 말을 듣도록 딱 3일 정도만 집안정소 좀 할래?”
그녀는 3일 동안 열심히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 했습니다.
3일후,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애들이 맘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느끼게 3일 동안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볼래?” 그 후 3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잘 보살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다시 3일 후,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거의 다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하자! 네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3일 동안만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보렴.”
그녀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었습니다.
3일 후, 약속한 시간이 다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전에 네 집을 마지막 한번만 둘러보렴.” 그녀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 얼굴에 흐뭇하고 사랑스런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녀는 갑자기 천국가고 싶은 마음이 썩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 나중에 갈래요!” 왜냐하면 결혼 후 처음으로 “바로 내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주님이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언젠가는 가게 될 곳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갈 본향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임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늘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로인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정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늘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환경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 우리가 평안을 되찾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작은 천국이기에 늘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가정은 생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며, 우리는 가정을 통해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주님이 주신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 송

- 1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 2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선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 하세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예배 후 교제 (새해 인사 및 덕담 나누기, 가족놀이)

설날 감사예배 지침

정월 초하루인 설은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부르며,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 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고 한다. 아침에는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들어 조상의 은덕에 감사를 드리고,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드린 후에 떡국(歲饌)을 먹는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가족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한다.

- 지침

- 1) 가족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둘러앉는다.
- 2)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3) 가족 가운데 어른이 예배를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되, 서로 순서를 나누어서 참여하는 것도 좋다.

2020년

설날 감사 가족 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한교회